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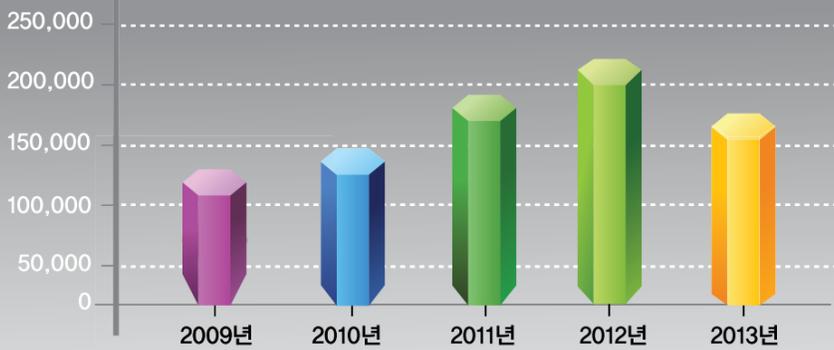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www.ichicken.or.kr

H O T
ISSUE

고병원성 AI 발생 이후 육계경기

일시적인 수급불균형, 생산잠재력은 여전히 높아

5년간 원종계 수입추이



물량 부족 강세 보여

기온이 올라가고 철새가 북상하면서 가금업계를 강타했던 고병원성 AI가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육계산업 안정화를 위해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 및 소비촉진 등 업계의 노력이 다방면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보상관련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가 하면 농장에서는 병아리 물량을 공급받지 못해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불균형은 AI 발생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아 일부지역에서 이동제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육계가 300만수 정도 매몰처분이 이루어진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AI발생 이후

60% 가까이 감소했던 닭고기 소비가 이제는 거의 회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수급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되면서 단기간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원종계 금년 16만수 쿼터 유지

2012년 원종계 수입물량은 23만 8,700수로 업계에서 보고 있는 적정 사육수수 14만수에 비해 40% 가까이 증가하면서 장기 불황을 예고하였다. 원종계는 농장에 입식된 이후 약 1년 후부터 병아리 생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2012년에 들어간 물량은 2013년 이

후부터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원종 4사는 2013년 삼기일전으로 쿼터제를 시행키로 하고 16만9천수를 수입하면서 장기적인 불황을 수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이는 적정 사육수수보다 아직도 많은 것이 사실이며, AI발생으로 일부 원종계 1만6천수가 매몰처분 되면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나 지속적인 수수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육계산업을 안정시키기에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높다.

수입 닭고기 증가 현상

지난해 닭고기 수입은 122,188톤으로 2011년 보다는 다소 감소했으나 매월 평균 1만톤 이상이 꾸준히 수입되어 왔다. 금년에는 AI발생으로 인해 수입닭고기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 2월까지 수입 닭고기 물량은 25,646톤으로 지난해 동기간 수입된 22,826톤에 비해 12%가 증가한 수치이다. 수입닭고기의 증가는 국내 시장 잠식으로 이어져 육계산업의 설 자리를 빼앗는 꼴이 되기 때문에 수입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미 미국, 유럽과의 FTA 체결로 관세가 서서히 낮아지고 있으며, 중국과의 FTA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수입여건은 더욱

불리해 질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 생산 잠재력 높게 나타나

육계사료 생산실적과 도계수수를 보면 AI발생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감소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상당수의 닭들이 매몰처분 되었음에도 원래 많은 물량이 입식되었던 관계로 사료생산 실적은 금년 2월까지 35만 683톤으로 지난해 27만 7,668톤보다 무려 26%나 많은 물량이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육계 도출실적은 52,528천수로 전월대비(52,301천수)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대비(38,880천수) 35.1% 크게 증가하면서 여전히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육계가격 상승은 도계수수가 낮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4월 동안 강세를 유지하겠으나 5~6월에는 다시 도계수수가 증가하면서 어려움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6월 월드컵 특수가 기다리고 있어 기대해볼만 하지만 9월까지 병아리 생산 잠재력이 평년보다 2~10% 높게 나타나고 있어 결코 낙관하기는 어렵다. 장기적인 감축계획을 통해 육계산업의 안정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사)대한양계협회 홍보부장 김동진

닭고기 자조금 거출기준 및 납부절차

농가출하
육계, 삼계, 토종닭, 육용종계 도계장으로 출하

거출금 징수 위탁
수납기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작업장 (수납기관은 농가의 자조금 납부 의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법 제 19조제2항)

거출금 징수
수납기관 : (도계되는 전수에 대하여 도계장에 의무 징수)

농가직접납부
도계수를 기준으로 농가가 직접 자조금 납부, 자조금 송금 후 관리위원회로 연락 필수

거출금 송금
수납기관 또는 농가가 직접 관리위원회에 납부 (수납 익월 20일 까지)

고지서 발송
관리위원회에서 수납기관 (도계장)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는 2009년 6월 1일부터 '축산물가공처리법령(수산물)에 관한 개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양계농가 사육하고 있는 농가라면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닭고기 자조금은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쓰여져 농가들에 더 많은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닭고기 자조금 납부 현황은 소식지와 닭고기 자조금 홈페이지(www.ichicken.or.kr) 자조금 납부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출시작일]
2009년 6월 1일 도계물량부터

[수납기관]
전국 도계장 대표자

[거출금액]
육계 5원, 삼계 3원, 토종닭 10원, 육용종계 30원(수당)

[농가직접납부 계좌번호]
농협 301-0017-6070-01 (예금주 :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공동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책 수립에 나설 때



칼럼

이 홍 재 (사)대한양계협회 제20대 육계분과위원장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희망과 꿈을 안고 시작했던 2014년이 AI의 발생으로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이번 AI는 사상최대의 살처분 마릿수를 기록하는 등 우리농가에게도 직접적인 피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금번 AI사태를 통하여 쏟아지는 민원과 항의를 들으면서 육계분과위원장으로서 지난 6년간 우리농가들을 위하여 무엇을 했는가 하는 반성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일 20대 육계분과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은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동안의 나태함을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로 더 희생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육계산업의 현안해결도 중요하지만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출발점으로 삼아야한다는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특히 최근 들어 축산업이 혐오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축사의 신축은 물론 증개축도 어려운 형편이 되었고, 앞으로 시행 될 환경부의 축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는 자금유통의 하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더욱이 금번 AI발생의 사후 대책으로 축사시설과 입지조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생산기반의 약화는 물론이고 영세 농가는 닭사육을 포기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닭고기 소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는데 비하여 생산기반인 축사시설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면 결국 수입닭고기의 시장점유율이 늘어나게 되고 국내 생산자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무허가 축사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도 축산업계가 한목소리로 정치적 해결을 요구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 알지만 그만큼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 식품의 안전성과 환경오염문제가 국민의 큰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우리 육계산업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닭고기 자급률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자급률 확보와 농가보호를 위하여 육계사육 쿼터제와 종계사육 쿼터제 등의 규제를 통한 산업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농가의 권익보호와 산업의 질서를 바로세우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

다. 현재 우리 육계산업은 계열사의 도계장 증설로 생산능력이 급격하게 증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 생산자들이 산업의 주인으로 대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육계인의 결속력 강화도 시급한 현안중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우리 육계인들은 계열화사업의 틀 안에서 전체적인 문제해결 보다는 개인적인 문제해결과 이익추구에 치중하면서 농가간의 경쟁구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계열화사업구조상 대한양계협회가 육계농가 각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각 시군지부가 지자체의 사업을 받기위한 역할에 치중하면서 육계인의 결속력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육계인대회를 통하여 축산계열화법 제정의 계기가 되었듯이 우리가 망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앞으로 육계인은 모든 시군에 육계지부를 조직하여 명실상부한 생산자를 대변하고 육계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생산자대표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2013년 2월 23일 부터는 우리의 염원이던 축산계열화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축산 계열화법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 농가들이 겪어왔던 보이지 않는 불이익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법이 시행됨에도 우리농가들이 그 법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 의미는 퇴색되고 우리는 또다시 과거처럼 계열사와의 갈등 속에서 닭을 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우리 육계 생산성은 병아리 품질에 의하여 많이 좌우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현재는 계열화사업의 심화로 종계농가나 육계농가나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지만 일부 계열사들은 병아리 품질문제를 종계농가에게 전가하여 육계산업과 종계산업간의 마찰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계든 육계든 계열화사업의 수혜자인 동시에 피해자이고 어쩌면 수혜보다는 더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똑같은 피해자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종계인과 육계인은 계열사와 정부를 상대로 공동의 이익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특히 종계에 필요한 백신의 개발과 정부지원은 종계인보다 육계인들이 강력하게 정부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종축은 정부차원의 감독과 지원이 뒷받침되도록 종계인과 육계인이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육계산업도 세계와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그동안 농가와 계열사와의 갈등의 핵심은 사육보수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절대평가나 상대평가나 문제가 아니라 육계산업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방법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농가 간에 피 말리는 경쟁이 아닌 사육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고 결과를 책임질 수 있는 공정한 사육보수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육계산업이 한우나 양돈, 낙농에 비하여 소외되고 홀대받은 것도 사실이지만 언제까지 남의 뒷맛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고 부족한 것은 정부에 지원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닭고기자조금사업은 정부에서 우리 생산자들에게 큰 기회와 많은 지원을 동시에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가 계열사의 참여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한 탓도 있지만 농가들의 무관심도 자조금사업 활성화의 큰 걸림돌입니다. 자조금이야 말로 닭고기산업을 발전시키고 생산자가 산업의 주인으로 역할을 하는데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자발적으로 거출된 재원으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여 농가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자조금사업의 활성화가 왜곡된 닭고기산업을 바로잡는데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농가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로 망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 낼 수가 없습니다. 또 남이 해 줄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육계분과위원장으로 마지막 임기라고 생각하며 육계인 여러분과 힘을 합쳐 육계산업의 발전과 생산농가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H O T
ISSUE

0 0 2

(사)대한양계협회, 오세을 신임회장 기자간담회 개최

농가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하되, '대화'와 '소통'을 통한 양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힘쓸 것



오세을 회장이 축산전문기자단에게 향후 (사)대한양계협회 기본 운영방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오세을, 이하 협회)는 지난 4월 2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오세을 신임회장의 향후 협회 추진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세을 회장은 협회 기본 운영 방침이

단 회장 혼자만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닌, 양계농가들이 원하는 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소통의 길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하림의 계란유통 진출과 관련해서

'대화'와 '소통'이라고 밝히며, 축산업계 모두가 한 배를 탄 입장이라는 마음이 핵심으로 해결점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밝

는 앞으로 육계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해결점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을 회장은 "양계협회를 좀 더 역동적이고 활기찬 협회"로 만들 계획이라며, 협회 내에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테스크포스팀은 (주)하림과 끝장토론을 진행해 농가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며,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앞으로 협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오세을 회장은 수급조절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현재 AI로 인해 병아리입식이 제한되어 수급조절이 되고 있는 듯이 보이나, 이대로 6~7개월을 방치하면 다시금 불황의 늪에 허덕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부화장과 대화를 하고 농가의 입장을 들어 육계, 종계, 산란계 등의 수급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협회의 인력풀을 총동원해 정확한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수급조절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세을 회장은 AI 보상금 문제와 방역 대책도 재점검해 농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오세을 회장은 육계분야에서 계열화사업자 및 관련협회와의 상생방안, 축산계열화사업법 정착, 수입닭고기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검토하여 육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축산부, 닭 가축분뇨 처리요령 및 실행방안 마련

AI 증식 시까지 농가에서 최대한 자체 처리 후 보관 및 외부 반출 최대 억제 요청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AI의 조기증식을 위해서는 축산관계 차량의 농장 출입 시 철저한 세척·소독조치가 필수적이다. 특히 바이러스 오염 가능성이 높은 가축분뇨 운반차량은 보다 철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닭 가축분뇨 처리요령 및 실행방안(이하 처리요령)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처리요령의 적용기간은 전국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증식 시까지이며, 닭분뇨의 경우 농가에서 보유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체 처리 후 보관하고 외부 반출은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분뇨 운반차량은 1일 1농가만 방문가능하며 가축분뇨 운반 전후에 세척 및 세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AI에 따른 방역지역별 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방역지역별 처리방법〉

- 1. 발생농장** : 살처분 시 농장 내에 매몰하거나 그 상태에서 생석회 도포 또는 소독 후, 비닐피복·원치커튼 등으로 밀폐·보관, 매일소독
- 2. 위험지역** : 농장내 매몰하거나 축사내 보관을 원칙으로 함. 산란계 분뇨는 농장내 이동은 허용하되, 농장 밖으로 반출은 금지
- 3. 경계지역** : 농장 외부로의 반출금지. 다만, 닭의 분뇨는 가축 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경계지역내 공동처리장으로 이동허용
 - 분뇨운반차량을 지정하고 스티커 부착, 감독관 입회하에 고압증기 세차 및 소독, 방역차량을 배치하여 분뇨처리장 내·외부 소독후 상차
 - 시장·군수는 감독관을 지정하여 소독 및 상·하차 감독, 농·축협 직원 등을 감독관으로 지정하고, 반출농장에서 공동처리장까지 동승·관리
- 4. 일반지역** : 분뇨를 반출하고자 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에 신청, 시·군은 가축방역관이 현지 점검하여 반출여부를 결정 후, 출하

각 정부 부처, AI 피해농가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 실시

재산세 감면(안전행정부) 및 국제 납부기한 연장(국세청) 등 세제지원

AI발생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이외의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AI 피해농가를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안전행정부는 AI로 인해 닭, 오리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닭, 오리 살처분 등 피해를 입은 양계농가의 축사시설에 대한 금년도 재산세를 당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한다고 전했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최대 1년(6개월 이내, 1회 연장가능)까지 유예하며,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에는 최대 6개월까지 납기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문의전화는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40)로 하면 된다.**

국세청은 AI 피해 농가(업체)에 대해 국제 납부기한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한다고 전했다. 지원대상자는 AI 발생에 따른 직·간접 피해를 입은 닭·오리 농가, 도축업자, 가공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국제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여 주고, 이미 고지된 국제의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며,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정지원은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제청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국제청 징세과(☎02-397-1602)에 전화하면 된다.**

소방방재청에서는 AI 피해농민들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유관기관·단체 협업을 통해 지난 2월부터 심리안정을 위한 상담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7개 시·도의 피해농가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재난심리센터 상담전문가인력풀(전국 2천여 명)을 활용하여 상담지원을 실시한다고 전했다. 또한 상

황종료 후에는 AI 잠복기 등을 고려하여 상담사가 개인별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전화는 소방방재청 예방총괄과(☎02-2100-5223)로 하면 된다.**

병무청은 AI 피해지역 축산농가의 영대상자에 한해 입영기일을 연기한다고 전했다. 연기대상은 AI와 관련한 축산농가의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영통지서를 받은 자이다. **연기신청은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각 지방 병무청 민원실에 전화를 걸거나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신청을 하면 된다.**

HOT ISSUE

AI 이동제한조치에 따른 손실 보전 및 지원을 위한 농가 지원방안

지원대상 농가는 소득안정자금, 경영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을 시·도지사에게 신청

AI 발생농가 반경 10km 경계지역 이내에 이동제한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양계농가들은 병아리 입식 금지, 계분의 농장 내 자체 처리 등 여러 가지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동제한에 따른 손실 보전 및 지원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득안정자금과 경영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경계지역 및 역학관련 농가의 이동제한에 따른 추가 사육비, 폐사율 증가, 상품가치 하락에 따른 농가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원대상은 경계지역 내 농가 및 역학관련 농가다. 지원조건은 축발보조 70%, 지방비 30%(축발보조 우선지급 가능)이다. 지원기준은 '추가사육비+폐사분+과체중 페널티'이다. 추가사육비는 출하 예정일 초과 사육기간 동안의 사육비로 닭은 12원/수/일, 토종닭은 18원/수/일이다. 폐사분 증가분은 3%(추가사육 10일 미만), 5%(추가사육 10일 이상)이고, 상품가치 하락(과체중 페널티)은 '출하가격×3%'이다. 적

용조건은 육계 사육기간 37일 이상, 토종닭 77일 이상이다. 소득안정자금 지원체계를 살펴보면, 시·도(군)에 지원신청을 하면 시·도에서 제출내용을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도의 제출자료를 검토하고, 시·도와 농협중앙회에 지원대상자 확정 및 통보를 하게 되며, 시·도에서 지방비를 확보하여 지원하게 된다.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AI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의 경영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가금산업을 조기에 안정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대상은 AI 방역조치에 따라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다. 지원조건은 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이며, 지원내용은 원료구입비, 인건비, 각종 수수료 등 제반운영자금이다. 지원한도액은 영업중단기간 동안 경영비를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산정한다.

가축입식자금 지원은 매몰가축 농가의 재생산을 위한 가축입식자금 지원으로 양축활동을 정상화시키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지원대상은 AI 발생으로 가축을 매몰한 농가이

며, 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이 지원조건이다. 가축입식자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재 입식 허용일로부터 별도 통보한 일정기간 내에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매몰 농가를 대상으로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식하는 경우 1회 사육능력에 해당하는 가축 입식비용을 지원하며, 지원한도액은 '1회 사육능력(수수) × 축종별 지원단가'이다. 축종별 지원단가는 종계병아리는 4,000원/수, 실용계 병아리는 700원/수, 토종닭은 800원/수이다.

가축입식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의 추진체계는 용자를 희망하는 농가(업체)가 운영자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된다. 시·도지사는 자료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에 자금지원을 요청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가별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관계부서(농업금융정책과), 시·도 및 대출기관(은행)에 지원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통보하면, 대출취급기관은 농가(업체)의 신청에 의해 용자를 실행한다.

소득안정자금 지원방안

항목	내용
지원대상	- 이동제한농가 - 정상입식 지원농가
지원조건	- 축발보조 70%, 지방비 30%(축발보조 우선지급 가능)
세부지원기준	- 출하지연농가 : 추가사육비+폐사분+과체중 페널티 - 정상입식 지원농가 : 입식지연에 따른 기회소득 손실분

경영안정자금 지원방안

항목	내용
지원대상	- 일반농가(비계열, 입식제한), 계열화사업자, 신란노계비축업자
지원한도	- 일반농가 : 한도 3,000만원 - 계열화사업자 : 닭 30억원, 오리 20억원 - 신란노계 비축업체 : 5억원
지원조건	- 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가축입식자금 지원방안

항목	내용
지원대상	- 사발생으로 인한 가축 매몰농가
지원한도	- 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지원조건	- 1회 사육능력(수수)×축종별 지원단가 - 축종별 지원단가 : 종계 병아리 4,000원/수, 실용계 병아리 700원/수, 토종닭 800원/수

삼계탕, 미국 수출길 열려 미국인의 입맛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

미 농업부, 3월 26일 국내산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 수입 허용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국내산 삼계탕의 미국 수출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산부)는 미국 농업부(USDA)가 지난 3월 26일(미국 현지시간)자로 우리나라를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 수입허용국가 목록에 추가하는 법률을 확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농축산부는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해왔던 축산업계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국내산 삼계탕의 대미 수출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농축산부는 그간 양국 위생 당국의 지속적인 협의 노력과 더불어 축산업계 대표 및 식약처 등 관계부처들로 구성된 '민관합동수출개척협의회'가 올해 1월부터 운영되면서 대미 삼계탕 수출을 위한 민·관의 강력한 추진의지에서

비롯된 성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농축산부는 이번 미국 정부의 국내산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의 수입허용 결정은 우리나라의 삼계탕 등 생산업체의 위생수준을 미국의 수준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전망했다. 이를 계기로 향후 삼계탕뿐만 아니라 기타 가금육가공품 등의 수출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미국 농업부가 미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한 우리나라를 삼계탕 등 수입허용국가로 인정하는 최종 법률은 공포된 날로부터 60일 이후인 5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농축산부는 미국 정부와 삼계탕 수출작업장 등록 및 수출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 잔여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고,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올 상반기 중 미국으로 삼계탕 수출이 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경연, 총 공급량 감소로 4월 육계 산지가격 전년 대비 상승한 1,700~1,900원/kg 전망

4월 도계 마릿수 10.5% 감소 및 닭고기 수입량 33.1% 증가 예상

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도계마릿수 감소로 4월 닭고기 총 공급량이 감소하여 4월 육계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상승한 1,700~1,900원/kg으로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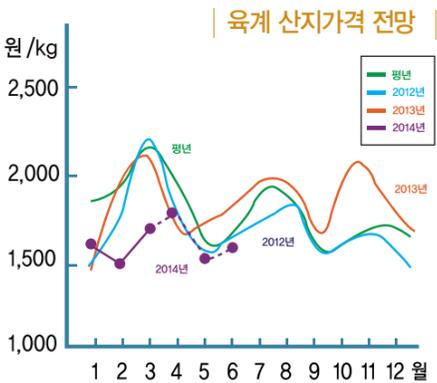
농경연은 4월 도계 마릿수가 사육 마릿수 감소로 전년 동월보다 10.5% 감소한 5,546만 마리로 전망하였으며, 4월 닭고기 수입량은 국내 생산량 감소로 전년

보다 33.1% 증가한 8,252톤으로 전망했다. AI 발생으로 인한 닭고기 수요 감소로 전월보다 87.6% 증가하였고, 삼계를 제외한 비축물량은 전년보다 13.5% 증가해 3월 2일 기준 닭고기 냉동 비축물량이 885만 마리였다고 밝혔다. 이처럼 도계 마릿수 감소로 4월 닭고기 총 공급량은 전년 대비 5.6% 감소한 7,504만 마리로 전망했다.

농경연은 개화과 프로야구 개막 등으로

4월 닭고기 수요는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전년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AI가 종식되고 닭고기 소비촉진행사가 추진되면, 닭고기 수요는 전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경연은 4월 닭고기 총 공급량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도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육계 생체 kg당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1~14% 상승한 1,700~1,900원으로 전망했다.



자료 : 농업관측센터 전망치

농축산부, 정부 부처 간 협업 통해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대응력 높인다

AI 발생원인 분석 및 확산방지 등 원천·실용기술 확보 목표로 사업추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축산부)는 '조류 인플루엔자(AI)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축산부는 이번 추진계획을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와 협업하여 추진하며, AI의 발생원인 분석 및 확산방지 등을 위한 원천·실용기술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AI는 새로운 아형(H5N8)의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닭, 오리 등에 산발적으로 나타나고 야생조류에서도 검출되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의 인력·재원·기술 역량을 결집하여 범부처적 협업을 통해 현장 적용성이 높고 단기 해결 가능한 기술 분야를 발굴하여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농축산부는 2017년까지 AI 발생 원인분석, 확산 방지 등 기술개발에 총 167억 원을 투자하며, 올해 40억 원을 AI 신속 진단법, 살처분 기술개발 등에 우선 투자한다고 전했다. 중점 투자분야는 이번에 발생된 H5N8형 바이러스의 특성과 확산 상

황을 반영하여 이번 연구개발의 중점을 철새의 유입 단계별 대응기술 개발에 둔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농축산부와 협력과제를 포함해 올해 계속과제로 ▲ 야생조류 유래 AI 병원체의 분자생물학적 특성 연구 ▲ 야생조류 AI 감염실태 및 역학적 변이기전 연구, ▲ 주요 질병 감수성 야생조류 이동 특성 연구, ▲ 주요 질병 감수성 야생조류 생태 특성 연구에 1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복지부에서도 올해 계속과제로 ▲ 인간·동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시체계 개발, ▲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접종 전략수립 기반 연구, ▲ 다중진단 현장용 인플루엔자 진단키트 개발 등에 38억 원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농축산부는 보건복지부, 미래부, 환경부가 참여한 감염병 다부처 공동기획을 통해, AI 등 주요 이슈 감염병에 대한 국가 간 협력(정보공유 등) 체계, 발생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현지 위험요인 역학분

분야	구분	주요 내용
사전·인지 감시기술	신규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별 야생조류·가금류 시 발행현황 조사를 위한 국제공동연구(환경부, 농식품부) (환경부) 야생조류의 이동 경로 및 인접국가의 시 분포현황, (농식품부) 현지 가금류 시 바이러스 분포 조사 후 정보 교환 여름철새 및 통과철새(남방철새) 도래 전 대응 시스템 마련(환경부, 농식품부 공동) (환경부) 야생조류의 이동 경로 조사, (농식품부) 환경부 조사결과를 토대로 국내 시 대응방안 마련 등
	기대효과	AI 조기 감시체계 마련 및 예찰 능력 강화
진단·예방 기술	신규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금류 폐사체·분변 정밀 신속진단법 야생조류 종별 감염도 분석(농식품부, 환경부) (농식품부) AI 바이러스의 검출 감염도 분석, (환경부) 야생조류 시 감염실태 및 병원체의 역학적 변이기전 연구 등 철새 포획검사 및 GPS 부착 확대(농식품부, 환경부)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각각 협력하여 포획 검사 확대(2천수~4) 고성능 위치추적기 개발
	기대효과	AI 신속 진단 예방
방역 기술	신규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체류 야생조류 종별 감수성 조사(농식품부, 환경부) (농식품부) H5N8 바이러스 공격접종을 통한 병원성 확인, (환경부) 자연상태의 야생조류 종별 폐사상황 및 감염 실태 조사 등을 각각 추진하고 정보 공유 축종별·축사 유형별 표준소독 매뉴얼 개발 (환경부) 축사유형별 야생조류 접근가능성 평가 등 별도 추진 후 농식품부에 정보제공 고성능 소독시스템 및 검역·방역장비 개발
	기대효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체계 구축
확산 방지·사후관리 기술	신규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 방역시스템 평가 및 개선방안 도출 (환경부) 철새도래지 방역시스템 평가 등 별도 추진 후 농식품부에 정보제공 H5N8형 AI 주요 병원성 및 병리기전 연구 살처분 기술 개발
	기대효과	전염경로 신속 예측, 사후관리 강화
동물 의약품 개발	신규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환경 AI 소독제 개발 H5N8형 AI 백신개발
	기대효과	면역성 증대, 사전 예방능력 제고

석 연구 등 조기 감시·인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농축산부는 이번 추진계획의 올해 추진과제로 대학, 산업계, 검역본부 등

전문가를 통해 상세기획(2월 중순)하고, 과제공고(2월말), 연구기관선정(3월) 등을 거쳐 4월에는 연구가 본격 실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육계질병가이드 / 백신 음수접종과 급수

환절기에 들어섬에 따라 백신접종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육계농가 대부분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음수로 접종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음수접종은 가장 간편한 백신접종 방법이지만, 몇가지 주의점을 지키지 않는다면 백신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동약업체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백신을 음수접종한 계군들 중 27% 정도는 전혀 백신접종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원인 중 급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급수관내에 남은 물 → 백신희석액이 더욱 희석되어 백신효능이 감소됨
- ② 백신접종 전 절수를 실시하지 않음 → 계군의 음수량이 불균일해짐
- ③ 접종시간을 너무 길게 잡음 → 급수관내의 백신여가가 감소됨

따라서, 음수접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음수접종 전, 2시간 절수”, “음수접종전, 급수관 끝에서 백신희석액이 나올 때까지 관류할 것”, “음수접종 후, 2시간 동안 계군이 먹을 물을 계산해서 투약기와 백신희석비율을 조정할 것” 이 세가지가 필요합니다. 또한 백신접종 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뒤에 계사 전체를 확인하면서 계군을 급수기 쪽으로 유도해주면 음수접종이 보다 효과

적으로 이뤄집니다. 음수접종 시 중요한 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짧은 시간에, 모든 계군이 정량의 백신희석액을 먹게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장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책은 필드 수의사와 상의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powerseeker@hanmail.net로 문의해주세요.

(제공 : 고려비엔피 정윤석)

체리부로 처갓집 양념치킨, 한국인의 입맛 사로잡는 웰빙 훈제치킨 판매 중



체리부로(회장 김인식)는 처갓집 양념치킨을 통해 닭고기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체리부로 관계자는 처갓집 양념치킨이 맛과 건강까지 생각해 재료부터 다르다고 설명했다. 처갓집 양념치킨은 100% 국내산 냉장 닭고기를 사용하며, 물엿이나 설탕이 아닌 100% 허니올리고당을 이용하고, 기름도 포화지방산이 적은 카놀라유와 콜레스

테롤과 혈압을 낮추는 올레인산이 다량 함유된 해바라기유로 만든 처갓집 양념치킨만의 전용유를 사용한다. 처갓집 양념치킨이 공급하는 치킨무는 무 사카린, 무 방부제, 무 색소를 사용해 소비자의 건강도 챙기고 있다.

처갓집 양념치킨은 웰빙 훈제치킨 3종 세트를 판매하고 있다.

‘햇불 훈제치킨’은 기름을 빼서 부드럽고 담백하며, 청양고추로 매콤함을 더한 특제 양념으로 만들어져 한국인이 좋아하는 매운 맛을 마음껏 맛볼 수 있다.

‘스모크 훈제치킨’은 국내산 영계를 선별하여 참나무 향기로 훈연한 고급 치킨이다. 담백하고 쫄깃한 식감으로 아이들 영양 간식으로 알맞은 제품이다.

‘와락 훈제치킨’은 참나무 향기로 훈연한 치킨에 센 불로 요리한 중화 요리식 치킨이다. 기존의 와락치킨이 짭조름한 맛이 강한 반면, ‘와락 훈제치킨’은 참나무 향기가 강하며 매콤한 맛으로 인기가 높은 제품이다.

단체소식 양계관련단체 업무추진 활동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개인 닭고기자조금 납입 현황(2014년 3월)

(단위 : 원)

대표자	농장명	납부금액	주소
양영생		100,000 (100,000)	
김대영	대영농장	197,165 (197,165)	전북 순창군 쌍치면
이옥례	해피농장	202,260 (406,410)	전남 곡성군 겸면
전병현		158,300 (158,300)	
최은희		58,600 (58,600)	전남 해남군 황산면
정운광	다운농장	80,000 (140,000)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
김이순	만경농장	214,500 (214,500)	전북 김제시 만경읍
이영하	시온농장	90,000 (206,000)	충남 논산시 광석면
문종길	성우농장	145,620 (291,870)	경북 영천시 북안면

※ 2014년 3월 자조금 납부금액 총계는 1,246,445원이며, ()는 자조금 납부금액의 누계입니다.
※ 명단에 주소가 없는 분들은 닭고기자조금 사무국에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02-585-9974)

(사)대한양계협회



2014년 4월 육계분과위원회의 개최



육계분과위원회는 AI 정부지원책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육계분과위원장 이홍재 부회장 연임키로
지난 4월 2일 본회에서는 4월 육계분과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올해 초 발생한 고병원성 AI발생으로 인한 모임자체로 분과위원회 개최가 지연되었던 관계로 금번 회의를 통해 육계분과위원장 선출이 이루어졌다. 신임 육계분과위원장 이자 제20대 부회장으로는 전임 이홍재 육계분과위원장이 취임되어 연임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임기를 지속할 예정이다. 또한 부위원장에는 김의겸 사장과 오세진 사장, 감사에는 한병권 사장이 각각 임명되었다.
분과위원회에서는 본회 오세을 신임회장이 참석하여 임기동안의 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한 인사말이 있었으며, 이 자

리를 빌려 육계분과위원들은 육계산업 현안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과 특히 계열사와 육계농가들 간에 지속되고 있는 마찰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분과위원회에서는 고병원성 AI에 대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고병원성 AI발생지역 농가의 정부지원책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며, 현 AI 방역대책 개선사항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집행부는 최근들어 고병원성 AI 발병이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양계농가들의 철저한 차단방역을 재차 요청하였으며, 고병원성 AI 발생원인 사례분석을 검토함으로써 다시 한 번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강조했다.

(사)한국계육협회



치킨송 '렛츠 꼬끼오' 정식 발매



왼쪽부터 이현, 개그우먼 맹승지, 김상희, 장원 (사진제공=마블링/엔스타컴퍼니)

빠 나 몰라?"라는 코믹적인 요소가 담겼고 단순히 푸드송을 떠나 치킨댄스 붐까지 일으키겠다는 포부가 담겼다.
치킨송 '렛츠 꼬끼오'는 유로 하우스 장르를 가미해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강렬한 비트와 랩이 가미 되

본회와 가수 마블링, 닭고기 우수성 홍보를 위한 특별 푸드송 제작

(사)한국계육협회(회장 정병학)와 가수 마블링이 닭고기의 우수성을 보다 쉽고, 널리 알리기 위해 만든 치킨송 '렛츠 꼬끼오'가 녹음을 마치고 지난 3월 31일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정식 발매됐다. 이번 '렛츠 꼬끼오' 치킨송은 온 국민의 1등 간식으로 사랑받는 치킨(닭고기)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본회와 가수 마블링이 힘을 합쳐 특별히 제작된 푸드송이다.
특히 이번 디지털싱글에는 MBC 개그우먼 맹승지와 김상희의 코믹한 피쳐링까지 더해 재미와 완성도를 높였으며 음원에 닭소리를 직접 샘플링해 화제다.
곡 중 개그우먼 맹승지의 유행어 "오

었고 인상적인 가사로 만들어진 치킨댄스곡으로 싸이의 강남스타일 '말춤'이 있다면, 올 한해는 '치킨댄스'가 점차 유행을 탈 예정이다.
가수 마블링은 "렛츠 꼬끼오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에게 기부하기로 했다"며 "기존 기부 받차가 있다면, 치킨카를 통해 다양한 이벤트와 기부를 할 예정이다"고 성원을 당부했다.
그동안 '쌀이야'라는 디지털 싱글로 활동하며 대중들에게 푸드송 그룹으로 인지도를 굳혀온 마블링은 다양한 방송에서 리포터로 활동하는 장원, 이현으로 구성된 2인조 가수로, 조금 더 유쾌한 웃음을 전달하고 노래에 관심이 많았던 두 남자가 마음을 모아 결성되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사랑의 토종닭 나누기'행사 개최

AI 발생으로 급감된 토종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AI 발생에 따른 가금류 소비촉진방안 사업계획행사의 일환으로 본 협회는 농가를 돕고 또한 소외 계층에 토종닭을 지원함으로써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사랑의 토종닭' 행사를 추진하였다.
본 협회는 지난 3월 21일, 27일 경기

도 이천 소재 승가원, 서울 고덕동 소재 우성원에서 '사랑의 토종닭 나누기'행사를 개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전해주었다.
사랑의 토종닭 나누기 행사는 이웃과 함께하며 토종닭 한닭의 안전성, 우수성을 직접 홍보하고 시식행사를 통해 토종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시식행사를



토종닭협회는 '사랑의 토종닭 나누기' 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닭고기 소비홍보에 나서고 있다

리 닭고기 절대 안전하며 AI에 걸린 닭이 절대 유통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본 협회는 앞으로도 소비외계층에 있

하는 직접적인 홍보행사였다.

이날 승가원, 우성원 두 관계자는 소외된 이웃에 관심을 갖고 토종닭을 기증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며 토종닭홍보에 앞장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본 협회 문정진 상임부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AI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우

는 모든 분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랑의 토종닭 나누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번 행사는 금번 AI 발생으로 소비가 둔화되어 어려운 농가들을 돕고 우수한 닭고기 소비홍보를 위한 정부의 특별지원금으로 실시되었다.

(주)참프레, 소비자의 신뢰성과 접근성 높인 홈페이지 개설



견학프로그램 및 댓글 이벤트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코너 마련

(주)참프레(대표이사 김동수)는 지난 3월 30일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이번에 오픈한 (주)참프레의 홈페이지는 회사소개뿐만 아니라 전북 부안공장의 도계 및 가공처리 등 전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온라인 견학관을 개설해 안전하고 신선한 닭고기를 생산하는 점을 강하게 부각시키며 소비자에게 (주)참프레 닭고기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주)참프레는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고객센터와 닭고기 레시피 정보를 제공한다

고 밝혔다. (주)참프레는 홈페이지를 통해 단순히 부안 공장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견학프로그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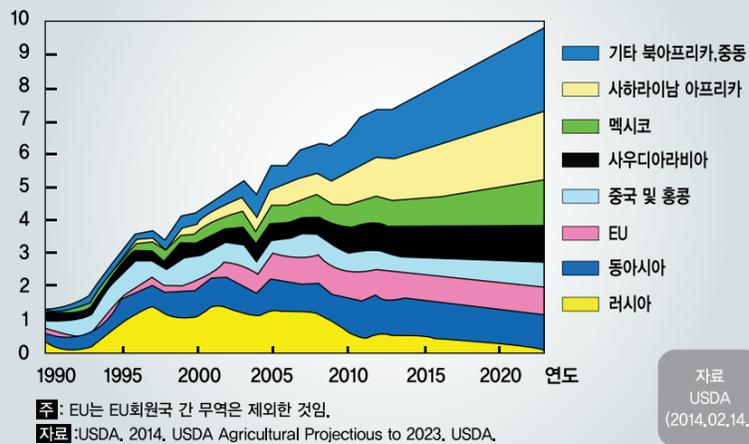
통해 손쉽게 공장견학을 예약하고 직접 견학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주)참프레는 이번 홈페이지 오픈을 기념하여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30일까지 '축하메세지 댓글 이벤트'를 개최했다. 홈페이지 내의 댓글입력창에 축하메세지를 남긴 소비자 10명에게 (주)참프레의 육가공 선물세트를 제공해 소비자와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주)참프레 관계자는 이번 홈페이지 오픈에 이어 (주)참프레의 모든 제품을 보다 쉽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쇼핑몰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경연, 2014~2023년 개발도상국 가금류 수입량 증가 전망

가금류 수입량 증가 추세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의 가금육 수입이 주요 수입국의 47% 차지할 것으로 보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은 2014~2023년 개발도상국의 육류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2014년 3월 해외농업농정동향'을 통해, 농경연은 전 세계 육류수요는 여타 육류에 비해 소비 증가세가 빠른 가금육 수요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경연은 미국 농업부(USDA)의 자료를 근거로 2014~2023년 가금육 수입현황이 220만 톤가량 증가하여 2023년에는 약 1천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러시아와 일본을 제외하면 대다수 국가에서 상당한 가금육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가금육 수입은 주요 수입국 수입량의 47%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또한 소득 및 인구의 증가는 2014~2023년 가금육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게다가 다수 국가에서 겪고 있는 동물관련 질병은 생산량 증가율을 낮춰 가금육 수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하여 2014~2023년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수입 증가율은 세계 수입 증가분의 약 8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아울러 멕시코, 중미(central

america), 카리브해 지역(Caribbean region)의 소비자 소득 증가에 따라 가금류 수요와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가금류제품은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 수요의 변동폭이 더 크지만, 덜 비싼 편이어서 이같은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농경연은 전망했다.

2014~2023년 멕시코의 국내 가금류 생산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 비율은 소비 증가율보다는 더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따라서 수입 또한 50만 톤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경연은 러시아의 가금육 수입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망에 따르면 러시아 정책이 자국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가금류 수입을 제한할 것으로 보이며, 비싼 가금류 가격과 낮은 소득 증가율은 1인당 가금류 소비액 증가 비율을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중국의 가금육 소비물량은 중국내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어 충족 가능하며, 중국의 가금류 수출 증가분은 수입 증가분을 조금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앞으로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가금육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할랄인증 등을 통한 가금육 수출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oday's
맛 있는
닭고기 요리

닭가슴살 김치찜

건강전문지 '헬스'가 선정한 세계 5대 건강식품 중 하나인 김치는 요구르트보다 4배나 많은 유산균으로 바이러스 억제효과가 뛰어나다. 대표적인 건강식품인 닭가슴살과 김치의 조화가 일품인 요리를 소개한다.

재료 닭가슴살 3쪽(껍질제거한것), 배추김치 100g, 어린새송이 6개, 홍고추 1개, 풋고추 1개, 다진 마늘 1큰 술, 굴소스 2큰 술, 청주 1큰 술, 닭육수 1컵, 김치국물 1/4컵, 들기름 1큰 술, 녹말물 1큰 술, 소금

Cooking

1. 닭가슴살은 솔방울 모양으로 칼집을 깊게 내어 끓는 물에 소금, 청주를 넣고 데쳐 건진다.
2. 배추김치는 줄기 부분만 1cm 네모로 썰고 새송이는 끓는 물에 데쳐 건진다.
3. 홍고추, 풋고추는 씨를 털고 1cm 네모로 썰어 놓는다.
4.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볶다가 닭육수, 김치국물, 청주, 굴소스, 소금을 넣어 찜국물을 만든다.
5. ④에 데친 닭가슴살, 배추김치, 새송이를 넣고 끓여준다.
6. 닭고기가 익으면 녹말물, 홍고추, 풋고추를 넣고 재빨리 저어준 다음 그릇에 담는다.



(제공 :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

퀴즈 낱말맞추기

1		13		11	
		12			
2				10	9
		7	6		
3	4		8		
	5				

◇ 가로풀이 ✨ ✨

1. 거리의 미관과 국민 보건 따위를 위하여 길을 따라 줄지어 심은 나무
2. 얽혀 있거나 복잡한 것을 풀어서 개별적인 요소나 성질로 나눔
3.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5. 만 1세부터 6세까지의 어린 시기
7.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
8. 외부에 대해서 지키도록 한 비밀
10.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11. 벼의 겉에서 맨 처음 벗긴 굵은 겨
12.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

◇ 세로풀이

1. '가축분뇨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상적으로 줄여서 쓰는 말
4. 땅속에서 뽑아낸, 정제하지 아니한 그대로의 기름
6.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연대순으로 적은 기록
9. 아무 근거 없이 널리 퍼진 소문. 터무니없이 떠도는 말
11. 제후국에서 임금의 자리를 이을 임금의 아들
3. 거래 관계에서 얻는 이익

69호 정답

10		12	10	8	
18	15	14		16	11
13		13	13		7
8	14			17	10
	17	14	14		15
12	16		11	12	17



양계 비법전수

닭의 개체 예방접종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세요.

접안법은 작은 물방울이 일반적으로 30ml당 1,000개 정도로 적하될 수 있도록 비강이나 눈에 백신 현탁액을 넣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도구가 점막에 직접 접촉되는 것을 피하고 백신병이 수직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하며, 국소와 전신면역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접안접종법은 종종 오일백신 접종(뉴캐슬병, 감보로병 등)과 동시에 할 수 있다. 부리침지법은 1,000수당 약 150~200ml의 백신액으로 부리에 침지접종하는 방법으로써 1주

령 이내의 병아리에서 가능하다. 천자법은 계두백신에서 유일하게 이용되는 방법으로 날개의 얇은 피부면을 단침 또는 쌍침을 이용하여 천자하는 방법이다.

근육 또는 피하 접종법은 생백신을 사용직전에 희석하여 주사하거나 불활화백신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기구는 반드시 멸균처리 해야 하는데, 주사바늘의 길이는 2주령 이하에서는 0.7cm, 2주령 이상에서는 1cm 정도 이어야 한다. 바늘의 직경은 오일백신의 경우 약 1mm 정도 되어야 하

며, 적어도 500수마다 바늘을 교체해야 피부나 근육이 상하지 않는다. 오일백신의 경우 사용하기 몇 시간 전에 냉장고에서 꺼내두었다가 사용하는 것이 좋다. 피하접종 경로는 닭의 경부후면이 적합하며, 특히 오일백신 접종 시 유용하다. 근육접종은 종계나 산란계에서 불활화 오일백신을 접종하는데 유용하며 산란개시 전에 접종하여야 하며 접종부위는 일반적으로 흉근을 이용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닭기르기 100문100답')

AI 차단방역 철저

AI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차단방역과 주기적 소독 필수

농장주, 관리인 등 농장근무자

- ⇒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자를 철저하게 통제
- ⇒ 계사출입시 발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생활화
- ⇒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 가축시장, 부화장, 집하장, 도계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등의 방문 자제
- ⇒ AI발생국 여행 자제(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철저한 소독 및 교육 실시
- ⇒ 살충 및 구서(쥐잡기) 실시

방문자 등 외부인

- ⇒ 농장출입구에 '방역상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
- ⇒ 발판소독조, 분무소독시설 설치, 운영
- ⇒ 외국인의 가금류농가 출입제한
- ⇒ 동물약품·사료·채혈요원 등 방문자의 사전 약속 및 청결한 의복·신발 착용
- ⇒ 계사 출입 시 깨끗한 방역복·장화를 착용하고 출입문에서 장화 침지 소독

출입차량

⇒ 모든 차량은 농장 출입구에서 세척 및 소독 실시

AI의심축 신고전화(1588-4060)